



일본 제1의 해바라기밭

호쿠류초 (北竜町)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넓은 부지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해바라기. 홋카이도 호쿠류초에서는 동화에서 나올 법한 이 풍경을 직접 감상할 수 있습니다. 호쿠류초는 삿포로에서 차로 약 1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7월 말에서 8월 중순에 이곳을 찾았다면 만개한 해바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제1의 해바라기밭이라 불리는 이곳에 처음 해바라기가 심어진 것은 30여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9년 시찰연수로 유럽을 방문한 농업직원이 구 유고슬라비아의 한 공항주변에 드넓게 펼쳐진 해바라기밭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관계자에게 재배 이유를 묻자 서구화되고 있는 식생활에 있어서 양질의 식물성기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고 그에 따라 질병 예방 효과와 풍부한 미네랄 성분을 함유한 해바라기유를 생산하고자 그렇게 넓은 해바라기밭을 만들게 되었다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마침 호쿠류초 농협 여성부에서는 자급자족으로 가정의 건강을 지키자는 '식생활 개선 운동'에 힘을 쏟고 있었고, 그 운동의 일환으로 '한 가구당 30평의 해바라기심기'를 추진하게 된 것이 일본 최고의 해바라기밭이 된 시초입니다.

해바라기는 비바람에 약하고 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핸디캡이 있는 만큼 다른 곳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이곳 호쿠류초에서만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밭을 가꾸어 온 호쿠류초 마을 사람들이 있기에 앞으로도 일본 제1이라는 해바라기밭의 명성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체험 학습의 장>

호쿠류중학교 학생들이 마을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뜻을 모아 1991년부터 발한 전에 '세계의 해바라기'라는 코너를 만들어 가꾸어 오고 있습니다. 매년 해바라기 30종을 직접 선정하고 구획을 나누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는 모든 일을



학생들이 담당하며, 관광객들이 물리는 시기에는 가이드를 자처해 해바라기밭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해바라기씨를 뿌리고 꽃이 피기까지~ 2011년



①4.11-여는 때보다 봄의 도래가 늦어 해바라기밭은 아직도 눈에 쌓여 있어요. -> ②5.27-드디어 눈이 녹고 5월의 끝자락에 씨를 뿌렸어요. -> ③6.17-예쁜 해바라기꽃을 피우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잡초제거를 해 줬어요. -> ④6.30-씨를 뿌린 지 한달만에 20cm 나 썩어 자랐어요. -> ⑤7.21- 노란 해바라기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 ⑥7.26-모습을 드러낸지 불과 일주일 만에 해바라기가 만개~했어요.



한일 친선교류 소년야구 홋카이도대회



지난 7월 26일 삿포로 다이요그룹 소년야구장에서 '한일친선교류 소년야구 홋카이도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작년 10월 서울특별시와 홋카이도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일환으로써 한일 양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들에 의한 교류라는 점에서 더욱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대회 전날인 25일에는 서울 방문단을 환영하는 석식회가 ban.K에서 열렸습니다. 양 도시의 어린이들은 처음 만난 여색함도 잠시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제스처를 섞어가면 자기 소개를 하는 등 금새 친해져, 즐거운 시합을 하자고 파이팅을 다졌습니다.

대회 당일인 26일은 서울은 청룡팀과 백호팀, 홋카이도는 사토즈카 이글스 소년야구단과 신에이 빅토리 팀, 총 4팀으로 나누어 경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오전에는 각 팀의 경기가 4경기 열렸으며, 오후에는 한일 혼합으로 팀을 구성해 경기가 열렸는데 언어의 장벽을 뛰어 넘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감동의 경기를 펼쳐주었습니다. 경기 종료 후, 홋카이도 선수들은 먼 곳까지 방문해 준 한국 방문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메달을 손수 목에 걸어주며 다음 대회에서도 꼭 만나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짧은 만남의 헤어짐을 뒤로 하고, 다음 대회는 내년에 홋카이도 팀이 서울을 방문하여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환영회



시합일



서울특별시 야구협회와 홋카이도 소년연식야구연맹의 우호교류협정 체결

지난 6월 29일, 서울특별시 야구협회와 홋카이도 소년연식야구연맹의 우호교류협정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서울과 홋카이도는 소년야구를 통하여 그 교류를 더욱 돈독히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도카치 평야를 달려 구불구불 이어진 언덕 도로를 따라가다보면 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는 광경이 눈 앞에 펼쳐지는데

일본에서 제일 넓은 규모의

나이타이 고원 목장

이곳이 바로 일본의 공용 목장 중에서 가장 넓은 '나이타이 고원 목장'입니다. 나이타이 고원 목장은 홋카이도 도카치 지방 북부의 가미시호로초(上士幌町)에 위치하며, 총면적은 약 1,700ha나 됩니다. 그 넓은 면적 때문인지 목장의 정상에 다다른 순간 느껴지는 상쾌함과 해방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타이 고원 목장은 생후 6개월 이상의 젖소를 맡아서 키운 후, 그 젖소를 수정시켜서 임신하게 되면 주인에게 돌려주는 위탁전문 목장입니다. 이곳은 국영사업에 의해 1972년 완성되었으며 현재 가미시호로초(上士幌町)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장 정상에 올라서면 확 트인 도카치 평야가 눈 앞에 펼쳐지는데, 이곳에 서는 순간 마음은 답답한 일상을 잠시나마 잊을 수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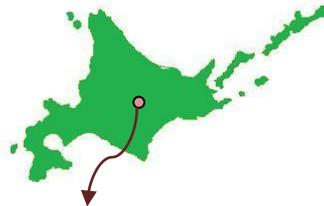


정상에 위치한 레스토랑에는 맛있는 소프트크림을 비롯해 간단한 식사메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장에 오르면 운치있는 나무 한그루가 방문객을 맞이하는데, 이 트리하우스는 2006년 텔레비전 광고를 위해 만들어진 나무 집으로 현재는 안전 관계상 나무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가미시호로초 (上士幌町)



가미시호로초 근처에는 또 어떤 볼거리가 있을까?

시카리베쓰코 호수 (然別湖)



가미시호로초 서쪽에 위치한 시카오이초(鹿追町)를 대표하는 명소 중의 한곳, 시카리베쓰코 호수(然別湖). 이 호수는 다이세츠잔 산 국립공원 유일의 자연호수로 800m의 표고에 위치하는, 홋카이도에 있는 호수 중에 가장 높은 표고의 호수입니다.

이곳은 겨울이 되면 호수가 전부 얼어붙기 때문에 그 위에 얼음 동굴을 만들어 빙상 위에서 노천 온천욕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눈이 녹는 봄부터 가을에 걸쳐서는 씨카약, 카누 등의 수상스포츠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호수 바로 앞에는 큰 규모의 온천 호텔도 있기 때문에 자연을 즐기며 여유롭게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누카비라 댐 (糠平)



가미시호로초의 누카비라에 위치한 누카비라 댐은 1956년에 세워진 댐입니다. 일반 댐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이곳에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이유는 수면이 낮을 때 모습을 드러내는 콘크리트 아치교 때문입니다. 이 누카비라 댐을 건설할 당시 이곳에는 국철 시호로선의 아치교가 있었는데, 댐 건설로 인해 다른 곳으로 노선을 옮기고 다리의 레일은 철거한 후 남은 것이 현재의 콘크리트 아치교입니다. 아치교는 수면이 높은 6월부터는 그 모습을 감추다가 수면이 낮아지는 1월에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현재 홋카이도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후세에게 전해줄 보물

홋카이도 유산

★ 그 여덟번째 이야기

도카치(十勝), 히다카(日高) 지역

☘ 물은천 - 오토후케초(音更町)

물은천은 온천수가 토탄을 통과해 용출된 것으로 검은 온천수가 특징입니다. 일본에서는 주로 도카치 지역에서 볼 수 있으며, '물'은 독일어 'moor'에서 온 것으로 토탄을 의미합니다. 주성분은 식물성 부식물로 광물성분보다는 식물성분이 많은 것이 다른 온천과의 차이점입니다.



☘ 라완머위 - 아쇼로초(足寄町)

라완(螺灣) 강을 따라 자생하는 라완머위는 높이 2-3m에 달하는 거대한 머위입니다. 예전에는 높이가 4m에 달하는 머위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까지 커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점이 많습니다. 라완머위는 맛이 섬세하고 미네랄과 섬유질이 풍부해 여러 상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 국철 시호로선 콘크리트 아치교

- 가미시호로초(上士幌町)

쇼와시대 초기에 도카치 지역 내륙의 산업개발을 목적으로 건설된 철도입니다. 보존되어 있는 34개의 다리 중에서도 다우슈베쓰의 아치교는 호수의 수위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해 '환상의 다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 시즈나이니츠크안 도로의 벚꽃 가로수

- 신히다카초(新日高町)



일본 토종말 대형화 개량을 위해 황실목장 전용도로로 1872년 개설되었습니다. 직선거리 7km에 이르는 도로 양 옆으로 약 3000그루의 벚꽃나무가 심어져, 웅장한 히다카 산맥을 배경으로 한 그 경관이 이 빼어나다.

사진제공-홋카이도 유산 협의회
<http://www.hokkaidoisan.org/>

※ 아카레가 통신 과월호는 홋카이도청 국제과 한국어 홈페이지 <http://www.pref.hokkaido.lg.jp/foreign/korean.ht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홋카이도 관광 정보는 홋카이도 관광진흥기구 홈페이지 <http://hokkaido.japanpr.co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 및 발행: 홋카이도 종합정책부 지사실 국제과 (北海道札幌市中央区北3条西6丁目 TEL: +81-11-204-5114 FAX: +81-11-232-4303)